

부산불교봉사연합

휠체어에 사랑 담아 잔치 한마당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사단법인 부산불교봉사연합(회장 서병환)가 바빠지는 때이기도 하다. 2002년 창립 당시부터 '영세지체장애인 휠체어 전달식'을 열고 있는 부산불교봉사연합은 장애인의 날을 앞둔 4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중증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100대를 보시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부산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휠체어를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당일 장애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펼쳐질 공연 단체 섭외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식전 행사에는 광명선원 합창단의 찬불가, 민요 공연에 이어 한울타리 예술단의 고전춤 선보이며 2부 전동 및 수동 휠체어 기증 행사와 3부 위안 공연 행사가 이어진다.

위안 공연 행사에는 민송예술단의 스포츠 춤, 부산지방경찰청 포털이공연단 공연으로 오랜만에 외출한 장애인들의 흥을 돋우게 된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여서 준비도 만만찮다.

영세지체장애인 100명에 전동 60대 수동 40대 전달 4월 15일 각종공연도 마련

부산불교봉사연합의 휠체어 기증은 올해로 3회째. 창립 당시부터 조직 내에 '영세지체장애인 휠체어 기증운동본부'를 따로 두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을 주는 것에 주력해왔다. 올해는 부산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전동 휠체어 60대와 수동 휠체어 40대를 지원한다.

부산불교봉사연합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없는 재가 중증 지체장애인이 부산에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기증 운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부산불교봉사연합의 봉사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불교아카데미, 2기 출신들을 주축으로 결성했던 이 모임에는 공무원 불자들이 회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어 창립 당시 공무원들의 휴무일이었던 매일 넷째 토요일을 정기봉사활동일로 정

했다. 지금은 45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 휠 봉사인원이 60명에 달하며 매주 목요일에는 재료비만을 받는 플라워 디자이너 무료 특강을 연다. (051)863-0505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시봉족위 결성법회 봉행

부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족위원회는 4월 4일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불기 2500년 부처님 오신날 봉족위원회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대회장으로 삼고 광사 주지 영제 스님이 수석부대회장, 대호정사 주지 해륜 스님이 상임부대회장을 맡았다.

부산시 봉족위원회는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세계도시 부산! 부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4월 21일 부산역 광장에서 봉족 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족 행사에 돌입한다.

천미희 기자

“부처님 법으로 정론직필 펴기를”

부산불교연합회 '국제신문 후원의 밤' 성황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주석청약서를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범어사 주지)는 4월 3일 독자 주권을 선언한 국제신문을 후원하기 위해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국제신문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총지종 통리원장 우

승정사, 법화종 총무원장 등 각 종단의 대표 스님들과 불국사 주지 종상·은혜사 주지 법타·법주사 주지 도공·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 등 조계종 본사 주지와 부산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등 150여명의 스님이 동참했다.

또 허남식 부산시장, 권철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오거돈 前 해양수산부장관,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이성언 불교방송 사장,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사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에 나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국제신문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국 최고가 되고 세계 최고의 신문이 되도록 불자들이 앞장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국제신문이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요구된다"며 후원을 당부했다.

이날 국제신문 김광삼 사장은 "정론이 생명의 신문으로서 정론의 논리적 근거를 부처님의 법에서 찾아간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접경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천미희 기자

“발우공양 통해 음식 소중함 깨달아”

美 기자협회 · 여행작가단체 범어사서 템플스테이



휴휴정사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습의를 거쳐 저녁 발우공양을 시작했다. 서툰 젓가락질이 부자연스러웠지만 스님을 따라 발우를 씻어낸 물을 마시고 정리를 마칠 때까지 흐트러짐이 없던 진지함은 외국인이라기보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발우공양을 마친 한 참가자에게 발우 씻은 물을 마시는 것이 역겹지 않았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과정의 힘들긴 했지만 발우공양을 통해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절제, 평등사상을 배울 수 있었고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꼭 알려 주고 싶은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금정산 너머로 해가 질 무렵 참가자들은 경내를 돌아보며 범어사의 역사, 종루에 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날 새벽예불, 탑돌이, 굿 등 만들기, 참선 등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3월 31일 오후 5시 참가자들은 범어사

이어나가자

사명대사 호국정신 일깨우는 산 교육장

밀양시, 4월 7일 사명대사기념관' 개관



사명대사 유적지 전경

임진왜란 당시 호국불교의 깃발을 올린 사명대사 기념관이 밀양에 문을 열었다.

밀양시 무안면 고리리 일대 5만여㎡의 부지에 조성된 사명대사유적지는 사명대사 기념관과 생가 건물을 건설한 유적지 조성으로 사명대사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내고 있다.

밀양시는 4월 7일 오후 2시 사명대사 기념관 앞에서 개원식을 열고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1년 동안 진행해 온 사명대사 유적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11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된 사명대사 유적지 중 기념관에는 사명대사 약력과 영정, 일대기를 볼 수 있는 영상실과 국보 제75호인 청동함은함원, 사명대사 가사장삼 등 복제품 65점이 전시되어 있다.

천미희 기자

천미희 기자

울산에 네팔문화원 개원

울산 언양에 네팔문화원(원장 일해)이 개원했다.

한국 네팔 문화교류협회(회장 일해)는 4월 6일 언양 삼남농협 지하 공간에 네팔문화원을 마련하고 개원법회와 함께 네팔 현지 라마승이 제작한 만다라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개원식은 1부 개원행사, 2부 네팔 문화 소개 DVD 상영, 티벳 라마 스님 전통춤, 림포체 오색진신사리 친견,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장 일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네팔 불교의 수행법인 밀교 수행을 한국불교에 알리고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만다라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네팔문화원은 향후 네팔 문화 소개와 석경, 수제 양탄자 등 네팔 특산물 전시, 히말라야 사진전 등을 열어 석경, 만다라 판매 수익금으로 네팔 아이들에게 신발과 옷,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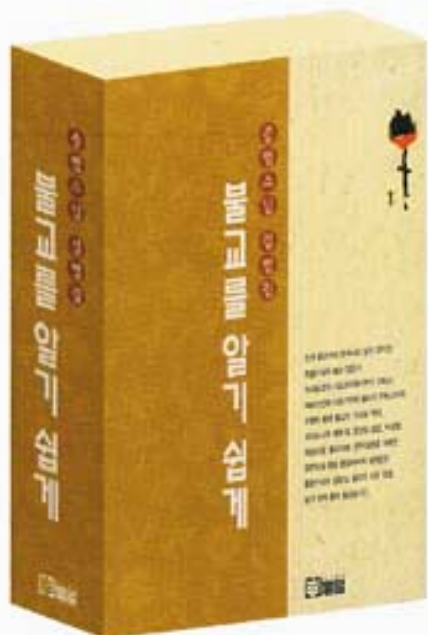
(052)262-0835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한국 불교계의 부루나 종범 큰스님의 육성녹음 설법 테이프!



불교를 알기 쉽게

설법에 있어 제일 가는 부처의 계사는 부루나존자이다. 종범 큰스님은 바로 한국의 부루나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고승이다. 한국불교에서 불교의 통시적 해설을 쉽고도 이해하기 편하게 실마한 종범 큰스님의 <불교를 알기 쉽게>는 불교입문서로서 그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반부에는 원시불교의 교리에서부터 선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정리하였으며, 후반부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법화경 등의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커다란 맥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검증과 무상한 삶의 가치를 되짚고 싶어질 때, 이 책은 길을 찾는 사람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어 줄 것이다.

■테이프 12개(불교를 알기 쉽게 도서 포함) ■값 78,000원 ■납게 별도판매



문을 나서지 않아도 풀밭이나라

경허선사로부터 이어지는 근대 선 불교 그 전통계를 이어받은 창봉선사의 선과 수행을 명쾌하게 집약한 법어집. ■형성스님 / 값 10,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교승 창담스님의 향기와 소리를 담아 현대인의 데마른 가슴에 빔음의 단비를 전해준다. ■창담 큰스님 / 값 9,000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꼭담스님은 '행하기 힘든 것을 행하고,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중도의 정신'이라고 설하신다. ■꼭담 큰스님 / 값 7,500원

현대고승법어총서 개정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봉 큰스님 아만상경에 문법장을 먼저 보거나 || 경산 큰스님 향상 마음을 넉넉하게 구산 큰스님 어질며 흘러가며 || 해암 큰스님 내량 관에서 깊은 불은 그대에게 해안 큰스님 마음이 곧 부처 || 청화 큰스님 순간에서 영혼으로. ■2006년 7월 출간 예정